

제주도민의 정체성과 생활문화 의식*

윤용택**

국문요약

지난 100년 동안 제주도는 일제강점기, 제주4.3, 한국전쟁, 새마을운동, 관광산업화 등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외지인이 제주도민으로 편입되고, 외지문화가 유입되면서 생활문화가 바뀌고 있고 제주도민의 의식도 많이 변화했다. 특히 최근에 제주가 국제관광지로 되면서 관광객이 밀려오고, 많은 이들이 제주도로 귀농·귀촌·이주하면서 제주다움과 정체성도 변하고 있다.

제주도민의 정체성은 자의식, 언어, 의식주, 신앙, 혼례 및 장례 등의 생활문화에서 드러난다. 여기서는 2014년 4월 제주도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성인 300명을 표본추출 하여 제주인의 기준, 언어생활, 의식주생활, 신앙생활, 혼례 및 장례문화 등에 대한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제주도민의 자의식과 생활문화 의식을 살펴보았다.

제주적인 것이 모두 다 좋고 훌륭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제주적인 것들 가운데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은 지키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족쇄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걸음으로 드러난 문화현상보다는 그 문화가 생겨나게 된 배경과 거기에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여 오

* 이 글은 2014년 제주문화원에서 발간된 「제주 생활문화 의식과 정체성, 『제주생활문화 100년』 내용을 논문 형식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늘날에도 유효하도록 계승하거나 변용하는 것이다.

주제어: 제주다움, 정체성, 제주인, 제주어, 생활문화의식, 민간신앙

I. 머리말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가 되면서 “가장 제주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제주다움이 제주의 미래다.” “제주다움이 가장 큰 브랜드이다.”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제주적인 것’과 ‘제주다움’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문화 산업 내지는 관광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제주적이고 제주다운 것일까? 자연이든 문화든 오로지 제주에만 있는 것이라면, 제주적이고 제주다운 것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문화도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기에 특정 문화의 고갱이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진리는 문화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제주만의 고유한 문화를 찾거나 제주문화가 영원히 변치 않고 남아 있기를 바랄 수는 없다.

제주의 전통문화는 제주다움을 잘 드러낸다. 제주문화가 독특한 이유는 첫째, 제주인이 다른 지역의 문화들을 흡수하여 제주 환경에 맞게 변형시켰기 때문이다. 즉 문물의 근원은 외부에서 비롯되었지만 제주에 맞게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제주섬이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지역에선 이미 사라진 문화들이 잘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주섬은 외부와의 접촉이

드물어서 한번 형성된 문화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그 원형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제주다움 내지는 제주의 정체성은 제주의 고유한 자질 내지는 특유한 고유항이라 할 수 있다. 이규태는 “정체성이란 바로 어느 민족, 나라, 문화권에든 그 민족, 나라, 문화권에만 있는 고유한 자질이 있으며, 다른 민족, 나라, 문화권에든 그런 자질이 있더라도 그 민족, 나라, 문화권에 유별나게 강한 자질이 있으니 그 자질을 그 민족, 나라, 문화권의 정체성이라 한다.”고 하고 있다 (김향원, 1998: 24-25쪽 참조).

제주도민의 정체성은 자의식, 언어, 의식주, 신앙, 혼례 및 장례 등의 생활문화에서 드러난다. 하지만 지난 100년 동안 제주도는 일제강점기, 제주4.3, 한국전쟁, 새마을운동, 관광산업화 등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외지인이 제주도민으로 편입되고, 외지문화가 유입되면서 생활문화가 바뀌고 있고 제주도민의 의식이 많이 변하였다. 특히 최근에 제주가 국제관광지로 되면서 관광객이 밀려들고, 많은 이들이 제주도로 귀농·귀촌·이주하면서 제주다움과 정체성도 변하고 있다.

여기서는 2014년 4월 제주도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성인(만 20세 이상)을 거주지역,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출생지, 성장지 등을 기준으로 300명을 표본추출 하여 제주도민의 정체성, 언어생활, 의식주생활, 신앙생활, 혼례 및 장례 등에 의식 등과 관련문항을 일대일 면접을 통하여 실시한 설문조사¹⁾를 바탕으로 제주도민의 자의식과 생활문화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윤용택, 2014, <제주 생활문화 의식과 정체성 조사 보고서>, 『제주도연구』 42호, 제주학회 참조.

II. 제주도민의 자의식

1. 제주인(제주사람)의 기준

제주도 총 인구는 2013년 8월 외국인을 포함해 60만 명을 돌파했다. 일부에서는 2000년경 제주도에 사는 사람과 제주에서 출생하여 국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합하여 100만 제주인(제주도민)이라 하였고, 2010년경부터는 120만 제주도민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주인(제주사람)의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 없다. 어떤 이는 출생지나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제주도에 거주하는 제주도민은 모두 제주인(제주사람)이라 하고, 또 다른 이는 제주도에 이주해서 3대를 살아야 제주인(제주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제주도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성인(만 20세 이상)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제주인(제주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제주도민 대부분인 96% 정도가 자신을 '제주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도민 가운데 '육지출신이면서 10년 이상 제주거주자' 중 23%, '육지 중소도시 출신' 가운데 42%, '육지 읍면 출신' 가운데 27%는 자신이 '제주도민'이기는 하지만 '제주사람'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테면 제주도에 10년 이상 살지만 '목포(전라도, 호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경우 자신은 '목포(전라도, 호남)사람'이지 '제주인(제주사람)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많은 이들이 '어디사람'이라 할 때 그 '어디'는

나고 자란 곳을 의미하는 고향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제주도민은 제주인(제주사람)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제주도민에게 ① 제주도에서 태어나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 ②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타지(육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 ③ 거주지에 상관없이 부모가 제주도 출신인 사람 ④ 거주지에 상관없이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제주도 출신인 사람 ⑤ 타지 출신이라 하더라도 30년 이상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 ⑥ 출신지나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제주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⑦ 출신지와 거주지에 상관없이 제주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을 놓고 복수로 선택해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제주에서 태어나고, 제주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제주인(제주사람)이라 해야 한다는 비율이 92%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제주도민들 가운데 '출신지에 상관없이 한 세대, 즉 30년 이상 제주거주한 사람을 제주사람이라고 보는 비율(37%)이 '제주에서 출생하여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주사람으로 보는 비율(33%)보다 더 높았다. 이는 태어나고 자란 곳보다 현재 어디에 뿌리를 박고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이들이 더 많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실 제주도민들 가운데 '고(高)양(梁)부(夫)' 삼성(三姓) 제외하고는 모두 외지에서 들어온 성씨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제주에 입도(入島)하여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는 이들은 당연히 제주사람으로 봐야할 것이다. 한편 '제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출생지나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제주사람이라는 도민은 21%였다. 특히 육지출신 제주도민들 가운데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의 41%, 10년 미만 거주한 사람의 절반

은 '제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제주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육지에서 이주한 대부분의 도민은 제주도를 제2의 고향으로 뿌리내려 제주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부모가 제주출신'이면 자식도 제주인(제주사람)으로 봐야한다는 도민은 22%였다. 이는 부모 고향이 자신의 고향이라는 통상적인 이해와 제주는 언어와 풍습이 육지와 많이 달라서 부모가 모두 제주출신인 경우는 자식에게도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런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곧 제주인(제주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도 꽤 있다. 특히 육지 대도시에서 성장한 도민(31%)과 제주에 이주한 지 10년이 채 안 된 도민(33%) 상당수는 제주사람이라면 마땅히 제주를 사랑하면서 제주다움, 즉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지켜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볼 때 제주사람의 기준도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열린 자세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을 전후하여 제주로 귀농 귀촌하거나 결혼 이주민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드러나듯이 제주에서 태어난 도민은 육지출신 도민을 제주인(제주사람)으로 인정하는데 다소 인색하지만, 많은 육지출신 도민은 제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제주사람으로 인정하기를 바란다. 이는 제주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제주로 이주한 대부분의 제주도민은 제주를 제2의 고향으로 뿌리내려 제주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새롭게 이주한 도민의 삶과 문화는

제주의 생활문화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자타가 인정하는 제주사람들은 나중에 제주사람으로 편입되는 이주민들에게 좀 더 유연하게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

2. 언어생활 의식

언어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 타지에 가서 모국어나 동향 언어를 들으면 한층 정겹게 느껴지고 비록 외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보통 외지인들은 제주어(제주말)를 처음 들으면 한국어와는 매우 다르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제주어는 제주다움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제주어(제주말)는 추자군도를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서 쓰이는 말로 한국어의 다른 방언과는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언어학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본토 말과 독립된 개별 언어로 간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주어는 점차 사라지게 되면서 유네스코에서는 2010년 12월 제주어를 소멸 위기 5단계 중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민이 제주어를 일상생활에서도 꽤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도민의 언어에 나타는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어(제주말)에 대한 친근감, 일상생활에서 제주어 사용여부, 제주어 보존 방안 등에 대해서 묻은 결과 연령에 크게 상관없이 제주어를 들

으면 친근감과 자연스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민의 89%가 '제주어를 들으면 친근감과 자연스러움을 느낀다'고 하였고, 특히 성장지역이 제주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였다. 그리고 육지출신 제주도민도 제주어를 들으면 친근함과 자연스러운 생각이 든다는 비율이 60%이상이 되었다.

한편, 제주도민 가운데 '육지에 가서 제주도 사람을 만나면 제주어(제주말)를 자연스럽게 쓰는 도민'은 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86%)와 60대 이상(83%) 도민은 타지에 가서 제주사람을 만나면 제주어를 자연스럽게 쓴다는데 대부분 동의하였고, 제주출신 도민의 80~90%, 성장지역이 제주시 읍면지역 도민인 경우는 92%가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육지출신 제주도민도 제주에 10년 이상 거주하면 절반(48%) 정도, 10년 미만 거주하면 삼분의 일(33%) 정도가 제주어를 어느 정도 쓰고 있다는 게 확인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제주어(제주말)를 쓰는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멍-아방, 할망-하르방, 성-아시, 누이-오라방, 아지망-아지방, 삼춘-조케' 등의 제주어 호칭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민의 58%가 평소에 제주어 호칭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제주사람들은 평소에 인사말로 '안녕하십니까?(안녕?)', 처음 만난 사람에게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대신에 '어디 감수광?(어디 감서?, 어디 가멘?)', '뭘 험수과?(뭘 험서, 뭘 흐멘?)', '어디서 읍디가?(집이 어디파?)' 등을 사용한다. 평소에 그러한 제주어 인사말을 자연스럽게 쓰는 도민은 73% 가량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어(제주말)에는 '아래아(·)'가 남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제주어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중장년 이하 연령대에서는 ‘으’가 쇠퇴해 점차 ‘오’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는 ‘아래 아(·)’가 ‘오’에 가깝게 들린다. 도민들에게 “독(닭), 들(달月), 딸(딸), 물(말馬) 술(살肉), 쓸(쌀), 풋(팥)”을 “독(독), 들(돌), 딸(똥), 물(물) 술(술), 쓸(쓸), 풋(풋)”으로 발음하는지 물었다. 이에 전체 도민의 61% 가량이 ‘그렇다’고 하였다. 이는 1980년 대 후반 도민의 59%가 ‘아래 아(·)’ 발음을 하고 있다는 조사(김향원, 1998: 384쪽)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30년 전에는 ‘아래 아(·)’ 발음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물은 경우 ‘확실히 그렇다’(37%), ‘그렇다’(22%)였지만, 지금은 ‘확실히 그렇다’(19%), ‘그렇다’(43%)로 차이를 보인다. 위의 조사 사례를 놓고 볼 때 언어의 연속성은 아직까지는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제주어(제주말)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복수응답)라는 물음에 도민 51%가 ‘제주어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므로 공용어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고, 다음은 ‘학교에서 정규 제주어 교육이 있었으면 한다’(36%), ‘언론(방송, 신문 등)에서 제주어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31%), ‘외지에서 제주에 들어와 사는 이주민들에게 생활제주어를 가르쳤으면 한다’(22%), ‘간판을 되도록 제주어로 했으면 좋겠다’(17%)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에서 제주어몰입교육을 하고, 젊은 세대와 이주민들에게 생활제주어를 꾸준히 가르친다면 제주어는 앞으로도 전승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어공용어화와 영어몰입교육 논의 못지않게 제주어를 보존하기 위해 제주어공용어화와 제주어몰입교육 논의도 필요하다.

Ⅲ. 의식주 생활에 대한 의식

1. 갈옷에 대한 의식

의식주 가운데 의복은 쉽게 변할 수도 있어서 문화 지속성의 측면에서 취약하다. 제주사람의 삶은 그 자체가 노동이었기에 대체로 일상복과 노동복을 겸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사람들은 노동복으로 무명옷에다 풋감을 뺀 짜넨 감물들인 갈옷을 즐겨 입었다. 갈옷은 1960년대까지 제주의 일반서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던 노동복이자 일상복이었다. 갈옷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알맞은 소박하면서도 실용적인 옷으로 제주문화 10대 상징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었다(제주특별자치도, 2008).

갈옷은 통기성이 좋아 시원하고, 땀이나 비에 젖어도 몸에 잘 달라붙지 않으며, 빨리 건조되어 매우 실용적이다. 그리고 감물을 들인 천은 질길 뿐만 아니라 젖은 채 며칠을 두고도 썩지 않은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감물을 들이게 되면 뽀뽀해지고 강도가 강해져서 가시덤불에 걸려서 찢겨지는 일도 드물고 더러움이 덜 타고, 맹물에 주물럭거리려 행구어 털어 말리면 그만이니 편리하다. 그리고 면으로 된 기성복도 감물만 들이면 갈옷으로 탄생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응용갈옷이 탄생될 수 있다. 실제로 시대에 따라 여러 유형의 옷에 감물 들이는 것이 응용되었다(윤용택, 2010: 336-337쪽).

따라서 제주도민에게는 전통 노동복인 갈옷(갈적삼, 갈중이)에 대한 아련한 기억이 있다. 제주도민 가운데 80%는 전통갈옷을

입고 일하는 것으로 보았던 기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제주의 갈옷을 입는 빈도를 알기 위해 평소에 갈옷(또는 개량갈옷)을 입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도민들이 항상 입거나(1%), 자주 입는(5%) 경우는 거의 없고, 가끔 입을 뿐(17%)이다. 대부분의 도민은 갈옷을 전혀 안 입거나(58%) 거의 안 입는다(20%). 실제로 도민들이 갈옷을 입는 경우는 음력 팔월초에 벌초할 때나 입는 정도이고, 갈옷은 입더라도 주로 학력이 낮은 산북의 농어촌지역에서 일부 입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갈옷을 안 입는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한 결과, 40%가 '촌스럽다(세련되지 못하다)', '가격이 비싸다'(29%), '불편하다'(25%)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한편, 노동복이던 갈옷이 최근에 일상복이나 패션 갈옷으로 바뀌는 경향도 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결과 '갈옷을 일상복으로 격상시켜도 좋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거의 같은 비율(36%)이었고,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의견도 28%나 되었다. 제주갈옷이 명실상부하게 제주를 상징하는 옷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좀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향토음식에 대한 의식

음식은 지역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제주음식에는 척박하고 거친 자연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제주인의 지혜가 들어 있다. 오늘날에도 접할 수 있는 제주 향토음식은 '자리

젓, 멸젓, 게우젓, 마농지, 자리물회, 묵국, 갈치국, 멸국, 각재기국, 전복죽, 오이냉국, 미역냉국, 콩나물, 꿩엿, 빙떡, 보리개엿, 쓴다리' 등이 꼽힌다. 그러한 음식들은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의 것들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제주도민에게 향토음식을 좋아하는지 파악한 결과, 도민 대다수인 77%가 좋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980년대 후반 조사했던 생선(옥돔)국이나 자리물회를 좋아한다(78%), 호박 넣은 갈치국을 좋아한다(73%)는 비율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김향원, 1998: 125-135쪽 참조). 제주의 향토음식을 좋아하는 도민은 주로 50대(90%)와 60대이상(86%)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년 전인 1980년대 조사와 비교하면 매우 흥미있는 결과이다. 당시에 20대가 생선(옥돔)국이나 자리물회를 좋아한다(69%), 호박을 넣은 갈치국을 좋아한다(62%)는 비율이 70%가 안 되었으나 그들이 30년이 지나 50대가 되어서는 향토음식을 좋아한다는 비율이 90%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어릴 적 먹었던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의식주 가운데 음식이 가장 문화지속성이 높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조리법의 특징은 재료의 가짓수가 많지 않고, 음식의 꾸밈새가 단순하며, 여러 가지 양념을 사용하지 않고, 조리시간이 길지 않다는 데 있다(김봉오, 2014: 252쪽). 그러한 제주음식은 나름의 독자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 제주도 향토음식(자리돔물회, 갈치국, 성게국, 한치(오징어)물회, 옥돔구이, 빙떡, 고기국수)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제주도민 대부분인 97%가 그러한 움직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거주지, 연령, 학력, 소득에 상관없이 제주의 전통음식을 되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여서 주목된다. 그렇게 볼 때 제주인의 의식주, 즉 의복, 음식, 주거방식 가운데 제주의 전통음식이 제주다움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

3. 전통주거 방식에 대한 의식

제주의 전통민가는 제주자연과 사회환경을 반영하였다. 중산간에 초지가 많고 바람 많은 자연환경은 S자형 울레로 들어간 나지막한 초가를 만들게 했고, 자식이 결혼하면 분가하는 문화는 부모자식이 한 울타리에 살면서도 거주를 달리하는 안거리, 밖거리 구조를 만들어 냈다. 늙은 부모와 젊은 자식이 한 울타리에 살면서도 취사를 따로 하고, 경조사에도 부모와 자식이 따로 부조하는 제주관습은 대가족제도에 익숙한 본토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결혼한 자식들은 철저하게 자립을 해야 했고, 부모 역시 아주 늙어서 노동력을 완전히 잃거나 몸져눅지 않는 이상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이처럼 제주의 가족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분가주의와 강한 독립생활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자료(2012년 말 기준)에 따르면, 제주도는 총인구 592,449명, 23,141세대, 190,978가구이고, 주택 197,032채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일가구 단독주택 69,431채, 다가구 단독주택 40,823채, 아파트 52,988채, 연립주택 12,793채, 다세대주택 20,977채이다. 크게 본다면 제주도민들은 일가구 단독주택(35%)보다 공동주택

(65%)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제주의 삼무정신을 상징하던 대문 없는 주택구조가 바뀌고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적어도 주거에서만큼은 제주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제주도민 가운데 여건이 된다면 전통 초가집에 살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도민의 28%만이 '초가집에 살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고, 67%는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요즘 제주의 전통을 레가 도로확장, 주차공간 등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안타깝다'는 도민은 전체의 68%이고, '그렇지 않다'는 도민은 22%로 조사되었다. 삼무(도둑, 거지, 대문 없음) 정신은 제주를 상징하는 의식으로 간주되어왔는데,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주택구조가 바뀌고 삼무정신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다른 집에서 대문을 잠그는 것을 보면 삼무정신이 사라지는 것 같아 섭섭하냐고 묻은 결과 도민의 46%가 '그렇다'고 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41%로 혼재되어 있다. 도시화 되면서 이웃간 신뢰도 많이 사라지는 게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제주도민은 삼무정신은 제주의 정신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요즘 음식물쓰레기와 인분으로 돼지를 키우던 돛통시가 폐기물처리와 자원순환이라는 차원에서 생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 가운데 '돛통시를 농어촌에 복원하여 음식물 쓰레기나 농업부산물을 돼지사료로 사용하거나 돛거름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진 도민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52% 도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돛통시를 농어촌에 복원하여 음식물 쓰레기나 농업부산물을 돼

지사로 사용하거나 돛거름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제주시 동지역(49%), 젊은층(20대 42%, 30대 52%), 대학생(46%), 대졸이상(39%), 공무원(50%), 회사원(46%)들은 비교적 많은 동의를 하였다. 그런데 돛통시를 복원할 경우 실제적으로 복원 대상지역인 농어촌인 서귀포시 읍면지역(11%)과 동지역(14%), 제주시 읍면지역(25%), 60대 이상(25%), 농어업 종사(20%) 도민은 그 동의 비율이 낮아서 돛통시 복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돛통시의 원리를 이용하여 쓰레기배출을 줄이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윤용택, 2004: 154-157쪽 참조).

제주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신구간(1월 25일부터 2월 1일 사이)'에 이사를 하거나 임대계약을 하는 풍속이 있다. 그러한 신구간 풍속이 바람직한지 물은 결과 도민의 27%만 동의하고 있고, 반대의견을 가진 도민이 6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는 1980년대 후반 신구간 풍습에 대한 선호도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도민들에게 신구간에만 이사를 하거나 집을 고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느냐 물음에 '그렇다'(28%)와 '그렇지 않다'(57%)로 나타난 바 있다(김항원, 1998: 395쪽 참조). 신구간에만 이사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던 풍속이 30년 전의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신구간에 이사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하는 풍습은 금방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IV. 혼·상·장례에 대한 의식

1. 혼인제도에 대한 의식

제주도의 혼례, 장례, 상제, 제례 풍습은 자식이 결혼하면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분가하는 가족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주도에는 자식이 결혼하게 되면 장남이라도 분가를 하여 부모를 모시지 않지 않고, 재산은 자식들에게 균분상속을 하는 풍습이 있다. 이러한 철저한 분가제도는 자녀들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비교적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게 했고, 친가(親家)뿐만 아니라 외가(外家)와 처가(妻家)와도 강한 유대관계를 맺도록 했다. 철저한 분가제도는 권당문화를 형성하게 했고, 권당은 오늘날까지도 제주의 정치, 경제, 사회영역 등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망이 되고 있다.

권당문화는 제주도민 사이에 가능하면 제주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였고,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결혼은 제주사람끼리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가능하면 제주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도민은 24%에 불과했고, '동의하지 않은 비율'이 7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0년대 이후 대학진학을 위해 젊은이들이 육지로 나가고, 육지와 인적 교류가 많아지면서 결혼풍습도 바뀌게 된 것이다. 결혼풍습과 혼인제도가 바뀌면서 그에 바탕을 두었던 권당문화도 서서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식이 결혼하게 되면 장남이라도 분가를 하여 부모를

모시지 않지 않고, 재산은 자식들에게 균분상속을 하는 풍습에 대해서는 '그러한 풍습이 좋다'는 의견을 가진 도민은 73%에 달하고 있고,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1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0년 후반 조사에서 장남이 꼭 부모를 모시지 않고 고 재산을 아들들에게 균분상속하는 게 좋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70%,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17% 였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아마 이는 철저한 분가제도와 균분상속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들이 남녀평등과 자녀들간 평등이 대세를 이루는 오늘날에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이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제주도에는 결혼식 전날 친척과 친지를 접대하는 가문잔치 풍습이 있지만,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으로 바뀌면서 가문잔치가 어려워지고 있다. 도민에게 가문잔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고 물은 결과, '가문잔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진 도민은 22%에 불과했고,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67%나 되었다. 그러한 의견들을 반영하듯 요즘은 결혼식 당일에 친지와 손님을 접대하는 당일잔치를 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일잔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도민은 71%에 달하고 있고,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21%였다. 가문잔치 대신에 당일잔치를 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도의 혼례풍습도 매우 빠른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사람들은 추석·설날 인사와 결혼·장례 협조는 부계친과 모계친의 차이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협동하였다(최재석, 1979: 150-162쪽). 명절에 처가(또는 친정)에 인사가는지 조사한 결과 도민의 59%는 '인사 가는 편'이라고 응답했고,

25%는 '인사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육지에서 출가외인이라 해서 친정 출입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지만 제주에는 여전히 남녀평등 문화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명절에 외가(外家)에 인사가는지 조사한 결과 도민의 50%는 '명절에 외가에 인사가는 편'이라고 응답했고, 40%는 '명절에 인사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명절에 처가에 가는 비율보다 외가에 가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외가보다는 처가가 더 가깝게 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철저한 분가제도는 단순히 부모자식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어느 정도 독립된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서 딸에게도 재산상속이 이뤄지고 부모의 장례 때도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나름대로 역할과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러한 성평등문화는 여자들끼리의 계(친목)가 따로 있고, 경조사에서도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가 각각 따로 부조를 하는 겹부조문화도 생겨났다.

2. 장·상례제도 및 벌초에 대한 의식

전통적인 제주 장묘문화는 매장(埋葬)이었다. 그러한 매장제도는 전통적으로 음력 8월 초하룻날 일가친척이 모여 행하는 모듬 벌초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나 묘지난과 산업화로 장묘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도민에게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매장해야 하는지' 묻은 결과, 그에 동의하는 도민은 16%에 불과했고, 동의하지 않은 비율이 77%나 되었다. 이는 묘지 마련이 어렵고 산업화사회로 되면서 벌초가 힘들어지면서

화장(火葬)을 선호하는 비율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한다. 매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 바람직한 장묘제도로 '납골당'(37%), '가족 납골묘'(25%), '자연장'(20%), '화장후 평장'(16%) 등을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 장묘문화가 다양해지고, 제주의 장묘문화는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삼년상이라 하여 만 2년간 애도를 표하여 상례기간으로 삼았고, 탈상(脫喪) 시기를 ① 담제(禫祭, 대상으로부터 두 번째 달에 지내는 제사), ② 대상(大祥, 죽은 뒤 만 2년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 ③ 소상(小祥, 죽은 뒤 1년 뒤에 지내는 제사) ④ 삼우제(三虞祭, 장례식을 치른 후 3 일째 지내는 제사) ⑤ 장례식 당일 등에서 언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었다. 그 결과 '삼우제'(34%)나 '장례일'(28%), '소상'(26%), '49제'(9%)에 탈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담제(2%)나 대상(1%)을 선택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사는 지역과 종교에 따라 탈상시기가 크게 달랐다.

언제부터가 제주에는 상·장례 때 남편과 부인이 따로 부조하고, 특히 부인이 각 여자상주(딸, 며느리 등)에게 따로 부조하는 문화가 생겨났다. 1996년 5월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에서 곁부조와 이중부조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말 문제다'(79.5%)나 '약간 문제다'(16.8%),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3.5%),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0.2%)(김향원 외, 2000: 340쪽)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전부터 대다수 도민들은 곁부조 문화는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설문에서 '곁부조 문화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묻은 결과 '동의하지 않

는다' 70%, '동의한다' 15%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민들도 겉부조 문화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미 굳어진 관행이어서 좀처럼 시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별초는 제주의 효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음력 8월 초하루를 전후해서 많은 친척들이 모여서 하는 문중별초인 '모듬별초'는 그동안 못 만났던 친척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를 떠나 육지나 일본에나 사는 친척들도 별초에는 참석하는 게 제주의 풍습으로 되었다. 모듬별초에 참여하는지 물은 결과 절반 이상 도민이 '모듬별초에 참여하는 편'(57%)이라고 응답했고, 28%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1980년 후반 '제주도에서 조상들의 묘소의 별초를 8월초에 공동으로 하는 풍속이 좋은 지'를 묻는 조사에서 '확실히 그렇다+그렇다'(80.2%), '아닌 것 같다+확실히 아니다'(10.5%)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김향원, 1998: 396쪽). 그리고 이번 조사에선 '별초는 자랑스러운 제주문화이니까 지켜져야 한다'는 데 대해 여전히 많은 도민들이 '그렇다'(71%)고 하였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18%였다. 거의 한 세대 간격을 두고 조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10%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별초문화는 앞으로 30년 이후에도 남을 것으로 생각하는 도민은 40%이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비율은 38%이며, 잘 모르겠다는 도민은 22%였다. 따라서 별초문화는 점차 약화되긴 하겠지만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제주풍습으로 남을 것 같다.

V. 민간신앙에 대한 의식

1. 민간신앙의 실태

오늘날 제주섬에는 신당(神堂)이 400여개나 남아있지만 신앙적으로 찾는 이들이 많지 않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제주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녅(넋)드리고, 장례를 치른 날 밤에는 귀양풀이를 하는 것으로 볼 때, 제주무속이 박제화되지 않고 살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는 삼재(三災: 바람, 비, 가뭄 피해)의 섬이라 불릴 만큼 자연재해가 많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해안지대에는 일평균 기온이 5°C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온난다습해서 일 년 내내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다. 따라서 제주사람들이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극심한 자연재해를 신들이 내리는 재앙으로 여겼고, 질병을 신의 노여움 때문에 생긴 동티(動土)로 여겼다.

제주도민들은 힘든 일 있으면 점술가를 찾기도 하였다. 도민을 대상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점술가를 찾아가는지 조사한 결과, 도민의 16%가 '찾아간다'고 응답했고, '찾지 않는다'는 의견은 79%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제주도민은 사고가 나서 정신적 쇼크를 받았을 때 녅났다(넋이 나갔다)고 믿고 다시 정상생활을 하려면 심방(무당)을 불러 녅(넋)들여야 한다고 믿었다. 이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제주도민의 40%는 사고가 나서 녅(넋)나게 되면 녅(넋)들여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도민은 52%로 조사되었다. 이는 개명천지한 시대인데도 제주 무속문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제주에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망자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보내는 이른바 귀양풀이 풍속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결과 도민의 25%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귀양풀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동의하지 않는 도민은 61%이고,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도민은 1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제주무속 가운데 하나인 귀양풀이 풍습도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주도민에게 일이 잘 안 풀릴 때 굿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를 묻은 결과, 제주도민의 8%만이 일이 잘 안 풀릴 때 굿을 해야 했고, 87%가 '굿'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제주에는 역할과 기능이 다른 신당(神堂), 이를테면 본향당(마을 수호 신당), 일렛당(육아 관련 신당), 여드렛당(뱀[蛇] 신당), 해신당(어부 해녀 관련 신당) 등이 있어서 정해진 날에 아녀자들이 당에 가서 소원을 빌었다. (여자의 경우) 본인이 / (남자의 경우) 아내(또는 어머니)가 당(堂)에 가는 날에는 당에 가는지를 묻은 결과, 도민의 8%만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69% 도민은 '당에 가지 않는다'고 하였고,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는 경우'도 23%나 되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제주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민간신앙이 아직도 살아있긴 하지만 많이 쇠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제주무속에 대한 인식

곳을 하거나 신당을 찾는 도민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도 사고 등으로 정신적 쇼크를 받았을 때 녁(넋)들이거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귀양풀이를 하는 도민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아 제주도민 의식에서 다소 신앙적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무속이 '미신'인지, '전통문화'인지, 아니면 '전통신앙'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민들은 무속을 '미신'(46%), '제주의 전통문화'(29%), '전통신앙'(23%) 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속을 미신으로 보는 이가 많긴 하지만, 아직도 전통문화나 전통신앙으로 보는 이들이 도민의 과반수를 넘고 있다. 오늘날 제주무속은 신앙으로는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전통문화로 인식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영자, 2014: 532-533쪽). 따라서 앞으로 제주무속은 전통신앙으로서는 맥이 끊길지라도 전통문화로 남게 됨으로써 무속 자체가 쉽게 단절될 것 같지는 않다.

1960년대까지 마을구성원들의 안녕을 기원하던 마을제(포제, 리사제, 동사제, 당굿)는 마을공동체의 단합을 꾀하는 역할을 하였다. 새마을운동 이후 한때 사라졌던 마을제가 최근에 다시 부활되는 조짐도 보인다. 마을제에 대한 도민의 생각을 묻은 결과, '우리 마을(고향)에서 마을제를 지내는 것이 좋다'(37%), '아니다'(28%), '잘 모르겠다'(35%)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을제 참여 여부를 묻을 결과, 도민의 15%만이 마을에서 마을제를 지내는 경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도민은 85%이며, 이 가운데서는 '마을제 자체를 모르는 경우'(14%)도 포함되어 있다. 마을제 자체를 잘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것은 마을제의 내용과 형식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마을제의 유래와 의의 등을 이해시키다면 앞으로 마을제가 지역공동체의 단합을 꾀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운동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신타파 운동으로 신당을 파괴하고 굿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마을에 남아 있는 신당이나 당집을 도에서 지원·보존 해주기도 한다.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도민은 24%, 부정적으로 보는 도민은 26%로 두 의견이 비슷하고, '보통'이라는 판단을 유보한 도민은 5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당시에 당과 굿을 없앤 것은 잘 한 일인가'를 조사한 결과, 도민의 45%가 동의하였고, 20%는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잘 모르겠다'고 유보적인 의견을 보이는 도민은 35%였다.

어부와 해녀들의 생업과 마을민의 평안을 당곳인 제주칠머리당곳(주요무형문화제 제71호)이 2009년 9월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많은 도민이 제주칠머리당곳이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61%)고 하였고, '잘 모르겠다'(25%),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14%)고 응답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제주의 민간신앙은 제주도민의 마음속에 제주의 전통문화로 꽤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I. 생활문화를 통해 본 제주인의 정체성

화산섬 제주는 태풍의 길목인 온대·아열대 전이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비, 바람, 가뭄피해가 늘 상존한다. 하지만 지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안지대는 기상학적 겨울(일최저기온 0℃, 일평균기온 5℃이하)이 없어서 일 년 내내 식물이 푸름을 유지한다. 제주섬은 척박하긴 하지만 자연환경을 잘만 이용하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던 셈이다. 제주섬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적당하게 격리되어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전통문화와 지역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었다.

양중해는 제주인은 가혹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환경을 불굴과 불패의 의지로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생경(生硬)하면서도 목직하고, 투박스러우면서도 소박한 문화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제주정신을 근면(勤勉)자조(自助), 검소(儉素)절약(節約), 협동(協同)상조(相助), 강인(強靱)진취(進取), 숭조(崇祖)선비기질로 규정하면서, 이 가운데 숭조사상과 선비기질은 문맹퇴치에 큰 구실을 하였고, 족보를 만드는 열의가 높고, 조상묘소에 정성을 쏟고, 가문가례에서 유교적 형식주의 등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양중해 외, 1979).

진성기는 제주를 삼다(바람, 돌, 여자 많음), 삼무(도적, 거지, 대문 없음), 삼보(언어, 식물, 바다 자원)의 섬으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환경이 특유의 생활문화와 신뢰, 자립, 평화정신을 길러주었고(진성기, 1962), 제주사람들은 자연과 투쟁, 역사적 시련,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고 순응하고 반항하면서 분깃(分家)

(자주자립)정신, 수눌음(상부상조)정신, 즈냥(근면절약)정신이라는 제주정신을 창출해냈고 본다(진성기, 1966).

제주인은 산천초목과 인간 이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믿음(민간신앙)을 가지고 자연을 보전했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려는 세시풍속(신구간)을 지키면서, 각종 폐기물을 자원으로 순환하는 시스템(돛통시)을 통해서 자원고갈을 최소화했으며,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 맞는 옷(갈옷)과 먹거리를 창안하였다. 그리고 적은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체(수눌음과 계)를 조직하였고,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족제도(분가제도)를 두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퀘당문화)를 마련하여 살아왔다. 그런 점에서 윤용택은 제주정신을 '자연외경', '자연순응', '자원순환', '소박실용', '상부상조', '자립공존' 정신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윤용택, 2010).

그러나 제주의 전통 생활문화도 일제강점기, 제주4.3, 한국전쟁, 새마을운동, 개발과 개방의 물결 속에 많이 퇴색되고 사라지면서 제주정신도 사라지고 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부터 유채, 밀감 등의 환금작물 재배가 시작되면서 제주경제는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가 되면서 제주가 관광지로 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가 되면 감귤과 관광으로 제주도가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제주도민의 생활문화도 바뀌기 시작하였다.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고, 젊은이들이 대학진학과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육지로 나가게 되면서 제주의 전통 생활문화도 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가 되면 감귤이 과잉 생산되고 제주경제가 침체되면서, 제주도는 그 돌파구로서 자본과 사람이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를 꿈꾸게 된다.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각

중 규제를 뚫으로써 최근에는 중국 자본과 관광객이 제주섬을 점령할듯 밀려들면서 난개발로 제주자연이 파괴되고 전통 생활 문화가 풍전등화 신세가 되고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수백 년에 걸쳐 이뤄낸 근대화를 5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이뤘다. 근대화 과정에서 오래된 것은 낡은 것이기 때문에 버리고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세뇌 당하였다. 하여 지금은 오래된 것은 유무형문화제로만 남아있고 일상생활과는 무관한 것이 되고 말았다. 좋은 전통은 일상생활에서도 이어져야 하는데도 특별한 장소에서만 볼 수 있는 박제화된 유산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한 추세는 제주도라 해서 다르지 않았다. 섬이었기에 비교적 잘 유지되던 제주의 생활문화도 일제강점기의 일본풍의 유입, 제주4.3과 한국전쟁 당시 육지문물 도입, 새마을운동 당시 미신 타파와 의례간소화, 감귤과 관광산업으로 인한 경제규모 확대, 국제자유도시 정책추진 등으로 지난 100년간 제주의 생활문화는 엄청난 변화를 거쳤다. 요즘 제주도민들은 검소절약(즈낭)하면서 살기는커녕 오히려 허례허식과 과소비에 익숙해 있다. 이는 감귤 산업으로 물질적 풍요로 누리게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려들면서 그들의 일탈과 소비 행태를 보면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제주 생활문화에서 전통과 제주다움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아직도 제주인은 아직도 일상생활에서 제주어(제주말)를 사용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에서 제주어 보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언어생활에서 문화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식주생활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제주복식을 대표

하는 갈옷(감옷)을 일상생활에서 입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음력 8월을 전후한 벌초시기에 많은 도민들이 노동복으로서 즐겨 입을 뿐이다. 하지만 미국의 블루진(blue jeans)이 노동복에서 세계인이 즐겨 입는 패션으로 자리매김했듯이 제주갈옷이 명실상부하게 제주를 대표하는 옷이 되고 전 세계의 패션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학계와 산업계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음식은 지역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언어와 함께 그 지역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생활문화 영역이다. 제주음식에는 척박하고 거친 자연환경과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제주인의 지혜가 들어 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주인은 향토음식을 즐겨먹고 관광객들에게도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리고 특히 명절이나 제사 때는 전통 제주음식들이 차려지고 있어서 제주의 음식문화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연과 사회환경을 반영하는 주거공간은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적인 제주민가인 초가집은 지금은 민속촌에나 가야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제주에도 일가구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거의 두 배를 차지하게 되면서 주택에서 제주의 옛 모습을 찾기가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제주를 상징하던 대문 없는 주택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삼무정신도 옛말이 되고 있다.

제주의 혼례, 장례, 상례문화는 자식이 결혼하면 철저히 부모로부터 분가하는 가족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철저한 분가제도는 불가피하게 '켄당(眷黨)'이라는 혼인공동체를 만들어내어 '따로' 자립하는 삶과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적 삶 사이에 역동적 균형을 취하도록 하였다. 분가제도는 자녀들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비교적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게 했고, 친가(親家)뿐만 아니

라 외가(外家)와 처가(妻家)와도 강한 유대관계를 맺도록 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처가(친정)나 외가에 가는 이들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보아 지금도 남녀평등의 전통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이전에는 배우자를 같은 마을이나 이웃마을에서 찾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제주를 떠나 육지에 살더라도 제주는 육지와 언어나 풍습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은 반드시 제주사람끼리 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으나, 1980년 이후 젊은이들이 공부와 일자리를 위해 육지로 많이 나가게 되면서 그런 의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혼인에 의해 형성되던 권당문화도 앞으로 많이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생활형태가 바뀌고 주택구조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바뀌면서 혼례에서 가문잔치가 사라지고 있고, 장묘문화도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 바뀌고 납골당, 가족납골묘, 자연(수목장), 평장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의 미풍양속으로 얘기되는 별초문화와 관련해서는 거주지역과 종교에 상관없이 아직도 많은 도민이 별초는 자랑스러운 제주문화이니까 지켜져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별초문화는 앞으로 30년 이후에도 남을 것으로 생각하는 도민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도민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볼 때 별초문화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제주의 풍습으로 남을 것 같다.

오랫동안 고립된 속에서 전통문화를 지키며 살아왔던 제주에 지금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밀려들고 있다. 일찍이 간디는 “나는 사방이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창문을 굳게 닫아놓은 집에 살

고 싶지 않다. 온 세계에서 불어오는 문화를 자유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에 살고 싶다. 그러나 밖에서 불어온 문화에 덩달아 휩쓸려가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21세기를 사는 제주도민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아닌가 싶다.

제주적인 것이 모두 다 좋고 훌륭한 것은 아니다. 제주적인 것들 가운데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은 지키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족쇄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그러나 제주의 전통 생활문화를 탐구하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문화현상보다는 그 문화가 생겨나게 된 배경과 거기에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여 오늘날에도 유효하도록 계승하거나 변용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선휘, 2006, 『재일 제주도 사람의 타향살이』, 제주문화원.
- 고영자, 2014, 「Ⅶ. 민간신앙」, 『제주생활문화 100년』, 제주문화원.
- 김봉오, 2014, 「Ⅳ. 식생활」, 『제주생활문화 100년』, 제주문화원.
- 김항원, 1998,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대학교출판부.
- 김항원 외, 2000,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제주대출판부.
- 김혜숙, 1999, 『제주도 가족과 권당』, 제주대출판부.
- 송성대, 1998,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파피루스.
- 양중해 외, 1979, <탐라정신탐구세미나 자료집>, 제주대탐라문화연구원.
- 윤용택, 2004, 「21세기에 다시 보는 제주도-dot통시 문화-생태적 삶의 원형과 그 현대적 변형을 찾아서」, 『탐라문화』 25호, 제주대탐라문화연구원.
- _____, 2010, 「제주섬 생태문화의 현대적 의의」, 『탐라문화』 37호, 제주대탐라문화연구원.
- _____, 2014, 「Ⅺ. 제주 생활문화 의식과 정체성」, 『제주생활문화 100년』, 제주문화원.
- 조성윤 외, 2003, 『제주지역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 진성기, 1966(초판), 1990(3판), 『남국의 무속』, 제주민속연구원.
- _____, 1962, 『제주도학』, 제주관광안내소.
- 최재석, 1972, 『濟州島의 親族制度』, 일지사.
- 현용준, 2013, 『제주도 마을신앙』, 제주대탐라문화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2008, <제주문화상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발전연구원, 1997, <21세기 제주 제주인 도민의식조사 보고서>, 제주발전연구원.

Abstract

Jeju Islanders' Identity and Living Culture Consciousness

Yoon, Yong-Taek*

During the past 100 years Jeju islanders suffered Japanese occupation, Jeju April 3 Incident, Korean War, Saemaul Undong(New Community Movement), tourism industrialization and so on. In the process, many outsiders are incorporated into the Jeju people, other cultures are introduced, and varied cultural life has changed a lot of Jeju Islanders' consciousness. Recently holding Jeju island as an international tourist destination many mainlanders are migrating to Jeju island, Jejunes and Jeju islanders' identity are also changing.

Jeju Islanders' identity is evident in the culture of life, such as self-consciousness, Jeju dialect, food, clothing, shelter, faith, weddings and funerals etc.. Here, in April 2014 sampling the adult 300 people living more than five years in Jeju island, Jeju islanders' cultural life and consciousness are examined. Jejunes is not all of it good and great. We should keep it with the universal values of Jeju things, and throw away the shackles among Jeju ones in our live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and the cultural background than a cultural phenomenon, and to inherit or transform to be valid today.

Keywords: Jejunes, Identity, Jeju Islanders, Jeju Dialect, Living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Jeju National University

Culture Consciousness, Folk Beliefs.

교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E-Mail: sumsaram@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5. 1. 5.

수정완료일 2015. 1. 20.

게재확정일 2015. 1. 25.

